

여대생들이 만든 착한 '소개팅사이트' 인기

전남대 출신들 '오마당' 개설

지역 대학 출신 여성들이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성과의 만남조차 쉽지 않은 남·여 대학생들을 위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가 인기다.

회원 가입 비용으로 수십만원을 내거나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목적으로 한 사설 결혼정보업체와 달리, 이성 대학생들과 직장인의 '부담없는' 만남을 목적으로 해 젊은층을 상대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오마당'은 전남대 공대 출신 노아영씨를 비롯, 전남대 여대생들이 모여 만든 청년 소셜이벤트·소개팅 주선 전문 사이트로, '오늘 마주친 당신'의 줄임말이다.

광주 지역에 사는 20~36세 까지 대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난 2012년 8월 개설된 뒤 761명이 이용하고

광주 대학생·직장인 대상...이용료 저렴

'책임 주선' 입소문 타고 2년새 761명 이용

있다. 관련 페이스북도 SNS상에서 입소문이나 1346명이 친구로 등록, 소개팅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 사설 정보업체와 달리 저렴한 이용료로 마음에 드는 이성 대학생들과 부담 없는 '소개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역 대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의 경우 1만5000원만 내면 매니저와 상담, 2주 동안 이상형에 맞는 소개팅 대상을 만날 수 있고 2주 안에 이상형을 찾지 못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조치 후 30일이 지나면 다시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로 나이·직업, 주량·흡연 여부·군복무 등 구체적인 내용과 키나 몸매 등 '외모에서 퐁기는 느낌', 본인 이상형을 신청서에 적으면 담당 매니저가 10~15분 상담을 거쳐 '짜' 찾기에 나선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성 스타일을 작성, 불필요한 만남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점도 이용자들이 꼽은 인기 비결이다.

매니저가 학생증, 사원증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진행되는 점도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애인이 있는데도 나갔다가 적발되거나 불순한 의도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소개팅을 한 회원 70%가 상대방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며 절반 가까이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는 게 운영진 설명이다.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주선하는 사설정보업체와 달리, 편안한 '소개팅' 형식의 만남을 목적으로 해 대학생 및 초보 직장인들 사이에서 관심있는 사이트로 꼽히고 있다.

사이트에는 해당 커뮤니티로 이성을 만나 현재까지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성공담 뿐 아니라 "3 대 3 미팅을 신청한다"거나 "함께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할 인연을 찾는다"는 대학생들의 풋풋한 소개팅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5 해질 23:06
해짐 18:40 달짐 12:30

한들한들 코스모스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부터 흐려 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은뒤흐림 19/26 보성 맑은뒤흐림 15/25
목포 맑은뒤흐림 19/25 순천 맑은뒤흐림 18/26
여수 맑은뒤흐림 20/24 영광 맑은뒤흐림 18/25
나주 맑은뒤흐림 17/26 진도 맑은뒤흐림 17/25
완도 맑은뒤흐림 18/25 전주 구름많음 18/26
구례 맑은뒤흐림 16/26 군산 구름많음 18/26
강진 맑은뒤흐림 16/26 남원 구름많음 16/25
해남 맑은뒤흐림 17/26 흑산도 맑은뒤흐림 19/24
장성 맑은뒤흐림 17/25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0.5~1.0	북서	0.5~1.0
남해	남서	0.5~1.5	북서	0.5~1.5
서부	남서	1.5~2.5	북서	1.5~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간	높이	시간	높이
여수	11:18	06:15	23:58	19:00
	06:43	00:33	19:14	13:22

◇생활지수

식중독	60
운동	40
빨래	70

◇주간 날씨

날짜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날씨	☀	☁	☀	☀	☀	☀	☀
기온	19/27	18/25	17/26	17/27	16/28	17/27	16/28

화창한 가을날씨

큰 일교차 주의를

최근 '가을 장마'가 끝난 광주·전남지역에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광주·전남 지역은 중국에서 맑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전형적인 환절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20도, 낮 최고기온은 24~27도 분포를 보였다.

이는 평년 최저기온 17.7도보다 2.7도 낮은 기온이다. 이번 날씨는 1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엔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그치면서 일교차는 더 커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최근 일교차가 큰 것은 환절기로 진입하는 계절적 특성 탓도 있지만 중국에서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일교차를 댄 두꺼운 옷을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개 끼입는 게 체온조절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며 "당분간 건조한 날씨에 예상되는 만큼 감기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백기용기자 pbxer@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광주 '로또명당'은 복구에 다 있네

'1등 당첨' 36곳중 16곳

5회 이상 2등 배출 가게

15곳 중 8곳서 1등 당첨

복권 당첨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로또 1등을 배출한 광주지역 8개 점포에서는 2등 역시 각각 5회 이상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점포는 1등 4회, 2등은 무려 17회 당첨되는 기록을 세웠다.

나눔로또 측은 사업권을 이전받은 2007년 12월 262호차부터 최근 615호까지의 7년 동안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를 배출한 광주지역의 점포 수는 36곳이다. 그중 2회 이상 1등이 나온 가게는 10개다. 5회 이상 2등을 배출한 가게는 15곳인데 1등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곳은 7곳이었다. '1등 노다지' 로또 가게는 복구에 16곳 있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1등을 배출한 가게로는 ▲서구 9곳 ▲광산구 7곳 ▲남구 3곳 ▲동구 1곳 순이었다.

한편, 1등 배출 가게의 영험한 기운에도 장사가 더 잘되는 2등 배출 가게가 있어 화제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오픈 마트는 로또 1등 배출점 부럽지 않게 장

사가 잘되는 2등 배출점으로 소문이 났다. 나눔로또에 따르면 7월부터 한 달간 5개 회차에 걸쳐 2등 배출가게가 올린 매출이 1등 가게보다 많았던 곳은 오픈 마트 1곳이었다. 이는 1등 당첨자를 배출한 판매점과 같은 구(區)에 있는 2등 배출점의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다. 이 가게는 3km 떨어진 1등 가게보다 월 매출이 160여만 원 더 많았다.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서 박모(40)씨가 하는 로또 판매점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는 로또 1등을 2회 배출한 가게가 2곳, 1회 당첨된 가게는 4곳에 달한다. 이들 로또 가게에는 저마다 '또!또!또! 또! 또!' '1등 명당' 등 문구가 써진 현수막이 나붙었다.

1회 때부터 12년째 로또 장사를 했다. 박씨는 "이곳 주변은 상가와 주거지가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매출이 남부럽지 않다"며 "주위에서 아무리 1등 당첨 선전물을 붙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구 서석동의 한 로또 판매점은 '2등 3등 잘 나온 집'이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란 문구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 점포에서는 2등이 지금까지 2회 당첨돼 1억 원의 상금이 당첨자에게 주어졌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제1회 트렁크 톤 페스티벌'

13일 광주시 동구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 '차 없는 도로'에서 '제1회 트렁크 톤(teen) 페스티벌'이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열렸다. 휴일을 맞아 이곳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물건들을 구경하거나 구입하고 있다. 트렁크 톤 페스티벌은 사회봉사와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청소년 문화행사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병원장 후보에 윤택림 교수 확정

전남대병원 이사회가 차기 병원장 후보로 윤택림 정형외과 교수를 최종 결정했다. 이사회는 지난 12일 전남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31대 병원장 후보자로 윤 교수를 교육부에 단독 추천키

로 했다. 차기 병원장 임용 후보자 추천안은 재직 이사 10명 중 9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7일 이후 이어진 병원장

공석 사태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교수는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받은 것으로 3년간 전남대병원장을 이끌어 가게 된다.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윤 교수를 병원장 1순위 후보로 선출했으나 의결 절차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교육부 추천을 미뤘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공알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법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법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남	재혼	남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공무원, 교사	32~58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임페리얼 클럽